

2020년 4월 26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갈 5:1)

<도입>

지난 주 습 3:17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희망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인간됨을 이루는 성숙을 가져온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사람의 선택의 길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1]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5:1,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를 누리'을 방해하는 것이 종의 멍에를 선택하고 메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뒤에서 더 보겠지만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과 인간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예:

컴퓨터 과학자가 인간의 뇌가 몸에게 명령하여 수행케 하는 메커니즘을 보니 컴퓨터 중앙장치와 연결되어 명령/수행하는 방식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에 불과해'라고 말합니다.

동물학자가 인간을 보니까 동물에게 있는 본능과 똑 같은 본능을 가졌으므로 인간은 본능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인간에게 분명히 본능은 있고 필요하지만, 인간의 인간다움은 본능에 충실할 때가 아니라 이성, 감성, 영성을 발휘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류는 주로 전문가들이 범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시간과 자본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언급한 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부각시키고 가치를 단정짓고 축소하는 것, 이런 경향과 흐름을 환원주의(reductionism)라고 합니다. 그 본래 의미와 속성의 가치를 단순화하고 축소시킵니다. 이것은 오류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느 상황이 오면 사람을 좌절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본능적 욕구를 넘어서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이루는 조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막연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와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의 설문 조사 - 48개 대학, 약 8000명을 대상으로 2년 간. 질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6% -> 돈, 78% ->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갖는 것.

이것이 사람의 깊은 염원입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고 구현하는 것이 인간답게 만드는데, 그것을 못 찾아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현대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 자유함의 특권

이제 갈라디아서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1~4장에서 율법적 방식과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율법주의적 경향을 지적하며 경고했습니다.

4:1-7 -> 율법은 어릴 때 필요한 보호 역할을 하지만 이제는 온전한 상속자가 되었다.

8-11절 -> 날과 달, 등의 규례에 갇혔다. -> 이런 방식으로 하늘의 상속을 누릴 수 없다.

4장 후반 -> 하갈과 사라의 비유 -> 성도는 자유를 가진 여인, 사라의 자녀

5:1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율법적 삶의 방식과 수준으로부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환원주의, 즉, 뭐든지 자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축소된 의미와 가치만을 붙들게 합니다.

예: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율법주의적? 자유분방함으로? 참된 예배?

-> 예배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어떤 예배를 드릴지 선택하게 된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던 일주일간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 참 자유자로 서는 것은 예배의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선택할 때 결정됩니다. 그러나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율법주의이며, 드러도, 안 드러도 된다는 생각이면 자유분방 한 것입니다.

자유는 선택입니다. **갈 5:13** → 육체의 만족을 위해? 아니면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선악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축소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유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멍에를 메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툴지라도 나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에게 다가서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긍정적 생명의 일입니다. 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맺음>

우리를 받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 자유자가 될 때에 삶이란 긍정이며, 축복이며, 영광스럽기까지 한 선물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1. 5:1 에서 언급하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는 것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십시오.
2. 자유에는 선택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가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주님 말씀 속에서 떠올려 봅시다.